

간호 · 보건 계열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서 은 희¹

¹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 본 연구는 2005년 8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입니다.

* A Part of Master's Thesis,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and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in Korea*

Seo, Eun Hui¹

¹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주요어

대학생, 간호사, 이미지

Key words

College student, Nurse, Image

Correspondence

Seo, Eun Hui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 Hak-Dong, Dong-Gu,
Gwangju 501-746, Korea
Tel: 82-61-902-6271
C.P.: 82-10-7632-6271
Fax: 82-61-744-8706
E-mail: sillvia1004@hanmail.net

투 고 일: 2009년 11월 2일

수 정 일: 2009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9일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and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in Korea.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15th to November 15th, 2004. Subjects were composed of 679 students in three-year Junior College.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12.0 PC+ Win. The difference of nurse' image among departments and locations of Junior College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and Tukey test. **Result:** The mean score of nurses' image 3.1 point of the total 5 point. Nurses' image i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the department of nursing (3.54), physical therapy (3.01), radiology (2.97),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76) and clinical pathology (2.67). Nurses' image was significantly differed among the 4 domains according to 5 departments; 'the qualification of nurse', 'the role of nurs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nurse'. Nurses' image formed through directly contacting with nurses' and seeing nurses' action (69.1%), watching nurse in TV drama (15.9%).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nursing and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were affected by inter-communications with nurses' more than by mass media.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간호는 학문적인 발전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결과 많은 내적·외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간호사들은 건강관리 전문인으로서 여러 건강관련분야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Park, Aum, Jung, Jung, & Choi, 1992), 자신을 환자들의 옹호자요, 교육자이며, 돌보아주는 사람, 전문가, 연구가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Curan, 1985). 그러나 간호사들 스스로의 인식과 간호계에

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다수 일반 대중들은 변화하는 간호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간호사를 보는 시각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왜곡 되어 있다고 본다(Jung & Kang, 1993).

일반 대중들이 이처럼 간호에 대해 왜곡하거나,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간호사 이미지를 가지면 간호교육이나, 실무영역, 건강관리체계나 사회 속에서 간호사들의 위상, 역할 등에 관한 잘못된 선입견으로 간호사와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 이는 의료 소비자나 간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료현장에서도 적절한 역할에 맞는 적정 인력의 활용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Jung & Kang, 1993).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보면, 일반인과의

료인 및 환자대상 연구(Jang, 1998; Song, 1993; Yang, 1998),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Kim, 2004), 신문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Jung & Kang, 1993),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이미지(Kang, Ko, Yang & Kim, 2003)와 초·중·고·대학생 대상의 연구(Heo & Lee, 1999; Park & Song, 2001), 간호 대학생 대상의 연구(Kim et al., 1998; Yang, 2003)는 다수였으나, 간호 대학생과 보건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 동안의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사와 간호 대학생은 이미지 점수가 높았지만 대상자나 타 의료인과 보건 관련 인력은 낮은 이미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간호계만 스스로 자긍심이 높음을 의미하며, 간호사 역할 또한 전문적이지만 다른 한 전문직의 보조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다(Jang, 1998; Kim, 2004; Song, 1993; Yang, 1998). 따라서 팀으로 환자 치료에 협동해야 하는 간호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전문직 간호사 실무를 수행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것이다.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실무현장에서 함께 일할 동료들이 갖는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중요하며, 이미지는 사회인이 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쉽게 바꿀 수 없는 정신적 개념이므로 대학생활 중에 긍정적 이미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보건 계열인 간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3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향후 실무에서 함께 일할 보건 관련 인력이 간호사를 어떤 이미지로 지각하는지 조사하여 간호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간호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 1)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한다.
- 2)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의 이미지 형성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구성원들이 간호사에 대해 흔히 갖는 정신적 개념으로 어떤 것에 대한 방향 결정과 기본 태도에 대한 상징이며, 간호사 이미지 속성으로 자질, 역할, 사회참여, 대인관계로 구성된다(Lee et al., 1992).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하여 갖는 정신적 개념으로 Lee 등(1992)이 개발하고 Jang(1998)이 수정·보완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간호·보건 계열 3학년 재학생이다. 대상자 표집은 광주·전남 지역 3년제 10개 대학 중 간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를 모두 포함한 광역시 1개 대학과 중소도시 2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3개 대학의 총 재학생 1,036명 중, 간호과 263명, 물리치료과 122명, 방사선과 126명, 응급구조과 41명, 임상병리과 127명(679명)을 편의추출 하였고, 지역별로는 광역시 318명, 중소도시 361명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30일간 선정된 대학의 학과장의 허락을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자 보고식으로 기입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Lee 등(1992)이 개발하고 Jang(1998)이 수정·보완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29문항과 일반적 특성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ang(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0$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5$ 이었다.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s α 는 다음과 같다. 자질(9문항)의 Cronbach's $\alpha = .901$, 역할(7문항)의 Cronbach's $\alpha = .797$, 사회참여(7문항)의 Cronbach's $\alpha = .879$, 대인관계(6문항)의 Cronbach's $\alpha = .789$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2.0 PC+ Win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지역별·학과별 간호사의 이미지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정으로는 Tukey test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인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679명 중 21-25세 미만이 81.1%로 가장 높

은 구성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25세 이상이 15.8%, 21세 미만이 3.1% 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79.2%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방사선과와 응급구조과는 남학생이 과반수이상 이었다. 종교는 기타가 43.8%, 기독교가 35.3%로 나타났다. 실습기간은 12주 이상이 37.3%, 8주가 36.2%로 나타났다. 실습 시 간호사와의 직접적인 교류 유무는 '없다'가 물리치료과 84.4%, 임상병리과 72.4%, 방사선과 57.9%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 유무는 '없다'가 과반수이상 이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별은 '있다'가 간호과 90.1%, 응급구조과 73.2%, 방사선과 65.1% 순이었으며, '없다'는 물리치료과 54.9%, 임상병리과 47.2%, 방사선과 34.9%, 응급구조과 26.8%를 차지했다. 실습한 병원 종류는 종합병원이 43.0%, 대학부속병원이 35.1% 순으로 나타났고, 실습 지역은 광역시가 61.4%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79)

Variable	Category	Nursing n(%)	Physical treatment n(%)	Radiology n(%)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n(%)	Clinical pathology n(%)
Age(year)	<21	8(3.0)	7(5.8)	-	5(12.2)	1(0.8)
	21-25	242(92.0)	88(72.1)	76(60.3)	34(82.9)	111(87.4)
	≥25	13(5.0)	27(22.1)	50(39.7)	2(4.9)	15(11.8)
Gender	Male	4(1.5)	18(14.8)	69(54.8)	21(51.2)	29(22.8)
	Female	259(98.5)	104(85.2)	57(45.2)	20(48.8)	98(77.2)
Religion	Christianity	99(37.6)	46(37.7)	45(35.7)	8(19.5)	42(33.1)
	Buddhism	34(12.9)	10(8.2)	21(16.7)	6(14.6)	25(19.7)
	Catholicism	12(4.6)	8(6.6)	11(8.7)	4(9.8)	11(8.6)
	Others	118(44.9)	58(47.5)	49(38.9)	23(56.1)	49(38.6)
Practice period	2 weeks	11(4.2)	-	1(0.8)	3(7.3)	-
	4 weeks	8(3.0)	30(24.6)	6(4.8)	12(29.3)	3(2.4)
	6 weeks	7(2.7)	1(0.8)	11(8.7)	16(39.0)	65(51.2)
	8 weeks	4(1.5)	82(67.2)	100(79.3)	7(17.1)	53(41.7)
	10 weeks	1(0.4)	1(0.8)	2(1.6)	1(2.4)	1(0.8)
	Over 12 weeks	232(88.2)	8(6.6)	6(4.8)	2(4.9)	5(3.9)
Contacting with nurse	Contact	200(76.0)	19(15.6)	53(42.1)	21(51.2)	35(27.6)
	No contact	63(24.0)	103(84.4)	73(57.9)	20(48.8)	92(72.4)
Nurse among family member	Yes	131(49.8)	41(33.6)	51(40.5)	19(46.3)	46(36.2)
	No	132(50.2)	81(66.4)	75(59.5)	22(53.7)	81(63.8)
Ability to discern differences between nurse & nurses aide	Make to discern	237(90.1)	55(45.1)	82(65.1)	30(73.2)	67(52.8)
	Fail to discern	26(9.9)	67(54.9)	44(34.9)	11(26.8)	60(47.2)
Type of practical hospital*	Clinic	23(4.0)	16(11.3)	2(1.5)	1(2.2)	3(2.2)
	General hospital	202(34.8)	92(65.2)	59(44.7)	29(64.5)	60(45.8)
	Teaching hospital	202(34.8)	18(12.8)	68(51.5)	14(31.1)	60(45.8)
	Oriental hospital	1(0.2)	8(5.7)	-	-	-
	Health center	147(25.3)	1(0.7)	1(0.8)	-	4(3.1)
	Others	5(0.9)	6(4.3)	2(1.5)	1(0.1)	4(3.1)
Practice area*	Metropolis	12(3.3)	55(38.2)	40(31.2)	-	17(13.4)
	Metropolitan city	232(63.6)	73(50.7)	71(55.5)	40(97.6)	78(61.4)
	City	121(33.1)	16(11.1)	17(13.3)	1(2.4)	32(25.2)

* overlapping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와 차이 분석

지역별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는 중소도시 대학생이 3.16점으로 광역시 학생들 3.10점 보다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1.169$, $p=.243$).

학과별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는 간호과 3.54점, 물리치료과 3.01점, 방사선과 2.97점, 응급구조과 2.76점, 임상병리과 2.67점으로 간호사 이미지 점수는 <Table 2>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83.923$, $p=.000$).

(Table 2) The mean score of nurses' image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N=679)

Department	Mean±SD	F	p
Nursing	3.54±0.45	83.923	.000
Physical treatment	3.01±0.40		
Radiology	2.97±0.57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76±0.60		
Clinical pathology	2.67±0.57		

3.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하위 영역 비교

학과별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하위 4개 영역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간호과 대학생이 4개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후검정으로 Tukey test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domains of nurses' image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N=679)

Domain	Department	n	Mean±SD	Tukey	F	p
The qualification of nurse (9 items)	Nursing	263	3.68±4.69	a	63.153	.000
	Physical treatment	122	3.17±4.37	b		
	Radiology	126	3.11±6.27	b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41	2.79±5.21	c		
	Clinical pathology	127	2.80±5.77	c		
The role of nurse (7 items)	Nursing	263	3.35±3.37	a	89.239	.000
	Physical treatment	122	2.75±3.15	b		
	Radiology	126	2.67±3.80	b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41	2.59±3.53	c		
	Clinical pathology	127	2.48±3.76	c		
The social participation of nurse (7 items)	Nursing	263	3.64±3.98	a	66.947	.000
	Physical treatment	122	3.06±3.80	b		
	Radiology	126	3.07±4.28	b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41	2.86±4.75	c		
	Clinical pathology	127	2.65±4.87	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6 items)	Nursing	263	3.46±3.11	a	46.754	.000
	Physical treatment	122	3.04±2.64	b		
	Radiology	126	3.01±4.10	b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41	2.79±2.92	c		
	Clinical pathology	127	2.71±3.73	c		

자질 영역, 역할 영역, 대인관계 영역에서 간호과군(a), 물리치료과와 방사선과군(b), 응급구조과와 임상병리과군(c) 3군의 순으로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3.153$, $p<.001$; $F=89.239$, $p<.001$; $F=46.754$, $p<.001$). 사회참여 영역은 간호과군(a), 물리치료과와 방사선과군(b), 응급구조과군(c), 임상병리과군(d) 4군의 순으로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6.947$, $p<.001$).

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형성 요인

학과별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문항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복수 응답 문항은 응답자의 42.3%가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모습', 26.8%가 '임상실습 중에 만난 간호사 모습'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입원, 또는 실습 중 간호사와의 직접적인 교류에 의한 것이 69.1%로 전체 3분의 2이상 이었다.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모습'은 임상병리과 63.6%, 물리치료과 54.4%, 방사선과 43.5%, 응급구조과 35.7%, 간호과 27.8% 순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중에 만난 간호사 모습'이 응급구조과 42.9%, 간호과 40.6%, 방사선과 20.6%였고, 'TV 드라마 속의 간호사 모습'은 방사선과 22.1%, 물리치료과 17.6%, 응급구조과 14.3%, 임상병리과 13.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to make nurses' image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N=679)

Category	Nursing n(%)	Physical treatment n(%)	Radiology n(%)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n(%)	Clinical pathology n(%)
Seeing nurses' action visiting hospitals or admission	81(27.8)	68(54.4)	57(43.5)	15(35.7)	84(63.6)
Directly contacting with nurses' during clinical practice	118(40.6)	14(11.2)	27(20.6)	18(42.9)	16(12.1)
Watching nurse in TV drama	40(13.7)	22(17.6)	29(22.1)	6(14.3)	18(13.6)
Nurses in family	23(7.9)	7(5.6)	10(7.6)	-	3(2.3)
Reading nurse of novel/literature	11(3.8)	7(5.6)	4(3.1)	-	3(2.3)
Others	5(1.7)	5(4.0)	4(3.1)	3(7.1)	6(4.6)
Professor's lecture	13(4.5)	2(1.6)	-	-	2(1.5)

* overlapping

논 의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났다. 학과별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집단에 따라 반응이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반면, 간호사와 상호 협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하는 타 관련부서 직원들은 간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Song(1993)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간호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특히 응급구조과와 임상병리과 학생이 간호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함과 동시에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는 대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환자(3.67점), 의사(3.21점), 일반인(3.14점)을 대상으로 한 Jang(1998)의 연구결과보다 본 연구대상자인 보건 계열 대학생의 이미지 점수가 낮은 현상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또한 간호사(3.58점), 간호학생(3.47점), 환자(3.44점)를 대상으로 한 Lee 등(199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도 환자가 생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보다 부정적임은 같은 직장인으로서 함께 건강사업을 수행해야할 인력간의 팀 역할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 4개 영역 중 자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이 사회참여, 대인관계, 역할 영역 순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질 문항으로는 간호사는 헌신적이다. 신뢰감을 준다. 정직하다,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도와준다. '백의의 천사'로 불릴만하다.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지지해준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 성실하다. 깨끗하고 단정하다는 내용이다. 역할 문항으로는 간호사는 교육자이다.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건강문제를 해결하

는 사람이다. 독자적으로 간호를 수행한다. 상담자이다. 지도력이 있다. 의사의 보조역할을 한다(역산 문항)는 내용이다. 이는 의사, 일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Jang(1998)의 연구에서 자질이 가장 높고, 대인관계, 사회참여, 역할 영역 순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과 유사하다.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를 비교한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스스로 환자에게 깊은 애정과 존중, 사랑을 갖고 독자적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주위의 다른 사람들 특히 함께 협력자로 일해야 하는 의사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은 의사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높게 평가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1993). 그러나 Kang 등(2003)은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임을 보고하였고, 간호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Lee(1993)의 연구에서는 간호에 대해 전문적이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높은 인식 정도를 나타냈다.

현재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어 여러 분야에서 직접 간호제공자로서, 연구자, 교육자, 상담가, 보건 정책 결정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간호사의 역할' 영역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하다고 본다.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에게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첫 번째 요인은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모습'이 42.3%, 다음 요인은 '임상실습 중에 만난 간호사 모습'이 26.8%로 전체 69.1%를 차지했다. 이는 병원에서 간호사와 직접적인 접촉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Kang et al., 2003; Kim & Kim, 2001; Lippman & Ponton, 1980)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 계열 대학생들도 입원과 병원 방문 및 임상실습 중 직접적인 교류가 가장 큰 이미지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건 계열 학생들이 실제 간호사와 교류는 약 반수 정도에 불과하여 접촉 여부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입원 환경은 물론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간호사 스스로가 간호직에 대한 긍지와 책임을 지니고 전문직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간호과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교내 행사나 동아리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보건 계열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간호사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 다음 이미지 형성 요인은 'TV 드라마 속의 간호사 모습'이 15.9%였고, 그 외에는 거의 미비하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이미지 형성이 대중매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Kalisch & Kalisch, 1987; Poronsky, 1997; Takase, Kershaw & Burt, 2001)과도 유사하였다. 1987-1991년간 신문에 나타난 간호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간호 관련 기사는 96건으로 1개 신문당 1/20에도 못 미치는 기사량을 보이고 있어 간호사의 활동이 대중적 관심을 적게 받고 있으며, 주제별로 분석하면 '전문적인 간호업무나 활동에 관한 기사'가 28.2%로 가장 많았고, '지위 향상이나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에 관한 기사가 10.9%였으며, 긍정적인 기사가 50.0%, 중립적인 기사가 32.3%, 부정적인 기사가 17.7%였다(Jung & Kang, 1993). Kalisch와 Kalisch의 연구(Kang, 1998)는 소설 속의 간호사는 항상 여성이었으며 간호와 관련된 역할은 항상 여성의 역할이었고 남성들은 의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중매체 중 소설과 서적은 영향이 미비하고 TV 드라마가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TV를 중심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모니터링하여 부정적인 경우 네티즌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압력을 주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를 표출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보건 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학의 연장으로 의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보며, 이러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에서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으로의 역할 수행을 강화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보건 의료계 구성원들의 간호사 이미지는 사회인이 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쉽게 바꿀 수 없는 정신적 개념이므로 대학생활 중에 긍정적 이미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의 이미지 지각 수준을 파악하여 현대적 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촉진하는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간호사의 역할이 간호마케팅 분야의 신직종인 서비스 코디네이터, 정보 분야의 간호전문가, 병원서비스

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필수적이며, 보건팀으로 함께 일하는 인력과 보건 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은 물론 정책개발과 전략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 의료계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실무현장에서 함께 일할 동료들이 갖는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보건 계열 대학 3학년 학생으로 간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총 67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Lee 등(1992)이 개발하고, Jang(1998)이 수정·보완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집단 자가 보고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2.0 PC+ Win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지역별·학과별 간호사의 이미지 차이는 t-test와 ANOVA, Tukey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이미지는 평점 5점 만점에 3.1점 이었다.
2. 학과별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과(3.54점), 물리치료과(3.01점), 방사선과(2.97점), 응급구조과 (2.76점), 임상병리과(2.67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3.923, p<.001$).
3.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 4개 영역(자질, 역할, 사회참여, 대인관계) 차이는 자질 영역, 역할 영역, 대인관계 영역에서 간호과, 물리치료과와 방사선과, 응급구조과와 임상병리과 3군의 순으로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3.153, p<.001$; $F=89.239, p<.001$; $F=46.754, p<.001$). 사회참여 영역은 간호과, 물리치료과와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4군의 순으로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6.947, p<.001$).
4. 간호사 이미지 형성 요인은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모습'은 임상병리과 63.6%, 물리치료과 54.4%, 방사선과 43.5%, 응급구조과 35.7%, 간호과 27.8% 순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중에 만난 간호사 모습'이 응급구조과 42.9%, 간호과 40.6%, 방사선과 20.6%, 'TV 드라마 속의 간호사 모습'은 방사선과 22.1%, 물리치료과 17.6%, 응급구조과 14.3%, 임상병리과 13.6%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는

보통보다 약간 상회하는 점수로 나타났고 중소도시 소재 대학생과 광역시 소재 대학생의 이미지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과별로 보면 간호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물리치료과와 방사선과였으며, 응급구조과와 임상병리과가 가장 낮았다. 또한 간호사 이미지 형성은 간호과와 응급구조과는 간호사와의 직접적인 교류, 간호활동 모습을 통해 형성하였고,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는 간호활동 모습과 TV 드라마의 간호사 모습을 통해 형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요한다.
2.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가장 관련 있는 요인이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임상 실습 중에 만나는 간호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므로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대중매체가 전문직 간호사의 이미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는 체계와 제도 확립의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uran, C. R. (1985).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media in J.C.M Closky & H.K. Grace*. Current Issues in Nursing. Blackwell scientific Pub.
- Heo, G. H., & Lee, B. S. (1999).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aegu,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9(2), 157-173.
- Jang, S. H. (1998). *Survey on nurse's im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Jung, M. S., & Kang, Y. S. (1993). The image of nursing projected in newspapers. *J Korean Acad Nurs*, 23(1), 16-28.
- Kalisch, P. A., & Kalisch, B. J. (1987). *The change image of the nurse*. Melno park, C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Kang, H. Y., Ko, M. H., Yang, J. J., & Kim, S. M. (2003).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33(6), 792-801.
- Kang, Y. S. (1998). Strategies for improving nursing's and nurses' image. *J of Gyeongsang Nat. Univ*, 37, 209-220
- Kim, B. S., Cho, C. H., Chi, D. O., Hyun, S. S., Chae, J. S., Lee, S. Y., Jee, H. Y., Chung, E. K., & Chi, S. A. (1998). A perception on the professional nursing of the nurse college student: a Q-methodological approach. *Chung-Ang Journal of Medicine*, 23(4). 219-236.
- Kim, H. J., & Kim, H. O. (2001). A study on image of the nurse. *JKANA*, 7(1), 97-110.
- Kim, S. Y. (2004).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es and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Lee, H. R., Choi, K. O., Ko, J. E., Hong, M. R., Kim, S. Y., & Sin, H. S. (1992). Survey on nurse's images. *J of Kyunghee College*, 15, 45-65.
- Lee, H. R. (1993). A study on recognition of nursing by oriental medicine doctor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5(2), 173-187.
- Lippman, D. T., & Ponton, K. S. (1980). Nursing's image on the University Campus. *Nursing Outlook*, 37(1), 24-27.
- Park, K. A., & Song, M. R. (2001).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imag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1(4), 584-597.
- Park, S. A., Aum, Y. L., Jung, M. S., Jung, S. Y., & Choi, K. S. (1992). Image of Nursing: Q methodological approach. *J Korean Acad Nurs*, 6(1), 13-23.
- Poronsky, C. B. (1997). *The television image of nurses & nursing 1995*. Unpublished master's thesis, Science in Nursing Science in the Graduate College of the UIC.
- Song, I. J. (1993).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J Korean Acad Nurs*, 32(2), 51-61.
- Takase, M., Kershaw, E., & Burt, L. (2001). Nurse environment misfit & nursing practice. *J Adv Nurs*, 35(6), 819-826.
- Yang, I. S.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 Korean Acad Nurs*, 4(2), 289-306.
- Yang, Y. S. (2003). *A study on the self-esteem and nurse image of th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